

# ‘영광대파 홍콩 수출’글로벌 시장 개척 기대

### 영광산 대파 홍콩시장 품질 검증으로 수출기반 마련 제고 “맛과 품질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서도 인정받을만큼 우수”

영광군은 지난 6월 1일 백수읍사무소 광장에서 대파 산업관계자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광대파 홍콩 수출 실증 상차식’을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행사 개최 목적으로는 우리군에서 재배하는 대파를 해외로 본격적으로 수출하기 위해 ‘품질 검증, 가격 형성, 선호도 조사’ 등의 시장성과 사전검증을 받는 수출 실증의 일환이며, 검증된 결과를 토대로 영광대파 품질향상과 소비자 트렌드에 맞게끔 상품화에 노력을 기울이기 위함이다.

또한 우리군 생산지에서 수확한 대파가 해외로 수출 시 유통과정에 발생하는 청염갈변

(변색), 물러짐, 저장성 저하 등의 다양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소비자에게 신선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수출상품에 품질관리에 중점을 두었다.

더불어 상차식에는 영광군, 영광군의회, 농촌진흥청 원예특작과학원, 전남농업기술원, 지역농협 관계자 등의 참석으로 영광대파가 해외로 진출하는 인지도 제고와 수출기반마련 방안 강구에 관심이 높았다.

강종만 영광군수 인사말로는 “영광대파가 홍콩 시장 진출의 첫걸음을 놓았다. 영광대파는 맛과 품질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인정받을 만큼 우수한 만큼 영광군 농업 경쟁



력 향상을 위한 중요한 성과이다.”고 말했다.

농촌진흥청 원예특작과학원 파속채소연구소 관계자는 “오늘 행사는 영광군과의 대파작목 연중생산 체계 구축과 연구 기술지원 업무

협약의 첫 성과이다. 홍콩뿐만 아니라 수많은 해외시장에서도 인정받는 상품이 되도록 더욱 협업을 다하겠다.”고 평했다.

영광=서희권기자



### 무안군, 감성돔·점농어 등 수산 종자 42만 마리 방류

무안군은 지난 5월 31일 수산자원 조성사업을 위해 환경면 홀동항 월두항을 비롯한 정계면 구모항 등 3개소에 고부가가치 어종인 감성돔 종자 28만 3천 마리와 점농어 종자 14만 4천 마리를 방류했다.

감성돔과 점농어는 지역 어업인들의 선호도가 높고 지역 특성에 잘 어울리는 품종으로, 감성돔의 경우 불철 및 가을철, 점농어는 여름철 어업인의 주 어획 품종일 뿐만 아니라 많은 낚시객을 불러들이고 있는 고급 어종이다.

무안군은 지난 2000년부터 지속적으로 방류사업을 시행하여 현재까지 감성돔, 점농어, 갑오징어 등 총 6,515만 마리의 수산 종자를 방류했다. 또한, 무안군 대표 수산물인 낚지 자원 조성을 위한 낚지 목장 4개소와 낚지산란장 6개소를 운영 중이며, 이번 낚지 굿어기(6.21~7.20)에 맞추어 교미 낚지와 어미 낚지 25,000마리를 추가로 방류할 예정이다.

무안=이기성기자

## “16일부터 신안 수국축제장으로 힐링하러 오세요”

### 신안군 도초 ‘환상의 정원’ 산림청 인증 모범도시숲으로 선정

신안군은 ‘환상의 정원(팽나무 10리길)’이 지난해 산림청에서 처음 시행한 모범도시숲 가로수 부문 인증을 받아 최근 산림청장 인증 현판을 도시숲내 설치했다고 밝혔다.

‘모범도시숲’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범적으로 조성 관리되고 있는 도시숲 등을 산림청장이 인증하는 제도로, 지난해 2022년 처음 시행됐다.

모범도시숲 가로수 부문의 ‘환상의 정원’은 수종 선정부터 식재, 사후 관리, 연계 행사 등 인증 심사기준을 모두 통과해 모범 도시숲으로 선정됐다.

특히, 도초에서 매년 개최되는 수국축제와 환상의 정원을 가꾸는 자원봉사단체 및 주민

참여 활동 등이 ‘모범도시숲’으로 선정되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신안군 관계자는 “1심 1테마 플로피아 섬 정원 및 숲길조성을 통해 모범도시숲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신안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모범도시숲 인증을 받은 환상의 정원(팽나무 10리길)에서는 오는 6월 16일부터 6월 25일까지 10일간 ‘배로 가는 섬 수국축제’를 개최하며, 수국정원과 환상의 정원은 한국기록원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 단위 면적(ha) 당 전국 최다 수국 식재 인증을 받은 바 있어 더욱 풍성하고 다양한 수국을 만날 수 있다.

신안=이덕주기자



### 영암 삼호주말장터 ‘대박’

#### 팬 문화 어울려...7/29일까지 매주 토요일

영암군 삼호읍에서 열린 삼호주말장터가 5,000여 명의 선주민과 이주민들로 북적여 아시아의 축소판을 옮겨 놓은 듯한 장관을 연출했다.

영암군이 주말을 맞은 지난 3일 삼호읍 대불종합체육공원에 삼호주말장터를 개장했다.

이날 개장식과 함께 문을 연 삼호주말장터는, 이주노동자·결혼이주여성 등 외국인주민과 선주민이 어울려 아시아의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고, 음식을 나누며 화합한 자리.

영암군은 삼호읍에 외국인주민이 많이 거주하고, 이들이 대불종합체육공원 인근에서 운동·모임 등을 하며 교류하는 현실을 반영해 이주민과 선주민이 함께 하는 삼호주말장터를 열었다.

영암=조대호기자



## 목포시, 세계 김산업 메카로 도약

### 일본·중국 등서 대양산단 가공공장 잇따라 방문

목포시가 김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아 우리나라 김산업 중심도시로 도약하고 있다.

5일 목포시에 따르면 목포지역 수출액 7800만달러 중 70%를 김이 차지하고 있으며, 김은 수산물 수출액의 94%를 차지하는 핵심산업이다.

지난 3월에는 일본 수산청과 대사관, 영사관, 일본 전국김가공업회, 전국김도매협회 등 5개 단체가 대양산단의 김 가공공장을 방문했다.

방문단은 목포 대양산단의 김 가공업체 두 곳을 방문해 제조공정과 시설 등을 살펴보고 목포김의 품질을 확인하는 등 많은 관심을 보였다.

일본 방문에 이어 우리나라 김을 수입하는 중국 베이징 제중도국제무역유한회사 관계자도 대양산단의 김 가공공장을 방문했다. 또한 주한 덴마크 외교부 소속인 덴마크 이노베이션센터와도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지난해에는 화상오 한-덴 해조류 교류 협력간담회를 갖고 우리나라 해조류 산업 현황과 김을 포함한 전남 해조류의 우수성을 홍보했다.

또 덴마크 현지에서 전남 해조류 산업과 다양한 김 관련제품을 전시했으며 현지 산·학·연 분야 이해관계자들에게 투자 등 교류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도 했다.

목포=기동취재본부

## 함평군 “고향사랑 기부하면 별초 서비스”

“고향사랑 기부하면 별초 해줍니다” 전남 함평군이 기부자 수요를 반영해 고향사랑기부제 담례로 별초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품목을 확대했다.

4일 함평군에 따르면 고향사랑기부제 담례 품목으로 별초대행 서비스, 주택화재 안전꾸러미 등 2개 품목을 추가 선정했다.

별초대행은 함평군 산림조합이 제공하는 서비스로 기부서 생성된 포인트로 할인권을 받아 별초대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함평에 산소가 있지만 직접 별초가 어려운 출향 향우들에게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줘 인기를 끌 것으로 기대된다.

주택화재 안전 꾸러미는 함평소방서에서 제안한 것으로, 소방시설 설치와 소방안전 교육이 결합된 서비스 품목이다.

기부자가 함평지역 주소지를 배송지로 선택하면 함평소방서 직원이 해당 주택을 방문해 소화기 등 소방 용품을 설치하고 안전 교육도 제공한다.

이상의 함평군은 “고향사랑기부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차별화된 담례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함평군은 현재 고향사랑기부제 담례품으로 43개 품목 80종을 제공하고 있다.

함평=김광춘기자

**아세요?  
한수원이요즘바쁜 이유**

온실가스를 없애고  
미세먼지는 줄이고  
기후변화까지 막는  
지구를 살리는 바른 에너지를  
세계 곳곳에서 만들고 있거든요

**한수원은 지금  
바른 에너지 개발로 열일 중**

**한국수력원자력주**